



해양경찰청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2. 11. 17.(목) 16:00	배포 일시	'22. 11. 17.(목) 16:00
담당 부서	구조안전국 수색구조과	책임자	과 장 유충근 (032-835-2046)
		담당자	계 장 정환기 (032-835-2146) (010-8250-5320)

해양경찰청,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및 컨퍼런스 성료

-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수색구조 발전방안 모색! -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1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수색구조의 정책·제도 발전과 해양경찰 수색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2회 해양수색구조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이 주최하고 해양 정책·안전 관련 학회가 후원한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해에 이어 2번째 개최되었으며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수색구조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수색구조 정책 발전방안’, ‘해양사고대응 및 후속조치방안’, ‘미래 수색구조 발전방향’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특별세션으로 전복선박 대응장비 개발 진행경과를 발표하였으며 온라인 중계를 통해 일반 국민들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경찰청 국정과제로 관리 중인 △민관협력 고도화를 위한 민간통합방안 △해상 재난대응체계 개선방안 △인공지능(AI)기반 해양수색구조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방안 등이다.

공동후원 및 패널로 참석한 한국해양대학교 최정호 교수는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해양경찰학회 차원에서 수색구조 정책 제도 발전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더욱 기여하겠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오전에는 서승진 해양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는 지난해 수상구조법 개정을 통해 기존 중앙 부처 공무원 중심의 ‘정책조정 기능’에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기술자문 기능’을 더하여 해양사고 발생 시 민관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수색구조 활동이 가능토론 구성된 법정 위원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3차 수난대비기본계획(2023~2027) 및 전복선박 대응 장비개발 추진 경과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양경찰청 차장은 “해양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바다에서 한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바다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